

의정부소방서, 소규모 공장 화재안전 강화계획 추진

✎ 윤성규 기자 | ㉠ 승인 2024.01.25 08:28

의정부소방서(서장 유해공)는 오는 2월까지 경기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화재안전 집중관리 계획을 추진한다고 1월25일 밝혔다.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정부 전체 화재 건수는 1084건으로 인명피해 68명(사망 17명, 부상 51명), 재산피해 128억7200만원 발생했으며 그 중 공장화재는 총 8건 발생으로 전체 화재 대비 0.73%를 차지하고 있다.

공장화재 인명피해는 없으나 재산피해는 6억500만원으로 전체 대비 46.6%로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재산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소방서는 오는 2월까지 관내 소규모 공장(연면적 1000㎡ 미만) 공장 밀집 지역 2곳을 대상으로 공장화재 현황 분석 자료 및 사례 전파·교육 등 맞춤형 현장안전컨설팅과 기초 소방시설 우선 설치 권장을 중점으로 하는 소규모 공장 화재안전 강화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 내용은 ▲소방여건 파악·화재위험요인 확인 등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카드 작성 ▲ 공장밀집 지역 화재안전 컨설팅 ▲찾아가는 화재안전 간담회 추진 ▲소방활동 시 취약요인 확인을 위한 현지적응훈련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 ▲SNS 및 의정부소방서 누리집을 통한 홍보 등이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공장 밀집지역 특성상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공장 관계자분들은 시설 내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숙소 등에 상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한 소방안전교육 전파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